기아 타스만 '사륜차의 에베레스트' 호주 오프로드 정복

경사 50도 악명 높은 '비어 오클락 힐'서 주행 제어 기술력 뽐내

튜닝 없는 순정인데 이걸 올랐다고…현지 매체 호평·유튜브 환호

기아 최초 픽업트럭 타스만이 '사륜 구동차의 에베레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호주의 극한 오프로드를 완벽하게 정복하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뽐냈다.

4일 기아에 따르면 최근 호주 오프로드 전문 유튜브 채널 '팀 브리 오프로드'에는 타스만이 호주 퀸즐랜드 오프로드 전용 코스 '비어 오클락 힐'을 오르는 영상이 올라왔다.

비어 오클락 힐은 경사 50도, 길이 100m에 달하는 가파른 언덕과 바위, 진흙, 웅덩이 등이 혼합된 지형으로 극한 코스를 자랑한다. 세계적 오프로드 차량도 주행 과정에서 차량이 뒤집혀 등정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륜 구동차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린다.

이 코스에 도전하는 차량 중 일부 차량만이 등정에 성공하지만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하게 별도의 튜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나온 타스만은 오프로드 전용 엑스프로 모델로 어떠한 개조도 하지 않고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만 장착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루카스 브리는 일반 주행보다 낮은 기어비를 적용해 저속에서도 높은 토크를 발휘하며 험로 주행에 유리한 '4L 모드'와 좌우 바퀴의 회전 차이를 차단해 바퀴가 헛도는 상황을 방지하는 '후륜 e-LD'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행을 시작했다.

영상에서 타스만은 바위 구조물로 인해 한쪽 바퀴가 들리기도 했지만 곧 중심을 잡고 헛바퀴 없이 굴곡진 지형을 빠져나갔다.

언덕을 내려온 루카스는 후진으로 다시 언덕을 올랐고, 후진 주행 또한 성공했다. 타스만의 전륜에 차동기어 잠금장치가 탑재되지 않아 멀리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타스만은 언덕의 4분의 3 지점까지 후진으로 올라 주행 성능을 입증했다.

등정을 마친 타스만 하부는 바위 충격으로 일부 흠집이 있었지만 CV(등속) 조인트, 타이로드(조향 장치와 바퀴를 연결하는 봉), 연료탱크 등 주요 구조물은 손상이 없었다.

유튜브 댓글에는 "정말 잘 만들었다. 멜버른 모터쇼에서 이 픽업트럭을 자세히 봤는데 실물로 보니 정말 멋졌다. 군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실내도 정말 멋지다", "외관이 멋져 잘 팔릴 것 같다. 저도 하나 주문할까 생각 중이다", "색상과 디자인이 군인다운 느낌을 준다. 마음에 들고 언덕길에도 잘 어울린다"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호주 자동차 전문지 '4X4'은 "타스만 성능이 과대광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며 "진정한 오프로드 성능을 원하는 호주 소비자에게 훌륭한 경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전문지 '드라이브'도 "기아는 호주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오프로드 언덕길 중 하나인 비어 오클락 힐에 도전한 업체로 이름을 올리며 호주 소비자들에게 역량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아 타스만이 '사륜 구동차의 에베레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호주 '비어 오클락 힐'을 오르고 있다.
〈팀 브리 오프로드 유튜브 채널 캡처〉

볼보 신형 XC60 외관.
〈볼보코리아 제공〉

볼보 SUV XC60 부분변경 모델 출시

누적 판매 270만대 최대 흥행작

볼보자동차코리아는 "프리미엄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C60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5인승 SUV인 XC60은 2008년 이래 누적 판매량 270만대를 기록하며 브랜드 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다.

신형 XC60은 최대 61㎞를 전기모드로 주행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T8)과 최고 250마력의 가솔린 기반 48V 마일드하이브리드 모델(B5)로 나뉜다. 판매 트림은 '플러스'와 '울트라'로 구분되며 B5 울트라 트림은 외관 테마를 '브라이트'와 '다크' 중 선택할 수 있다.

B5 울트라 트림부터는 에어 서스펜션이 포함된 액티브 섀시를 기본으로 적용된다. 주행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핸들링과 지상고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11.2인치 독립형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량용 내비게이션 '티맵 오토',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 오토', 네이버의 차량용 웨일 브라우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XC60은 많은 고객이 찾는 패밀리카로 프리미엄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동급 모델을 뛰어넘어 플래그십 수준의 승차감과 업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험, 세계적인 안전성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GV70, 제네시스 SUV 최초 글로벌 누적 판매 30만대 돌파

해외 판매 비중 50% 육박

미국 시장 4년 만에 3배 성장

제네시스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70이 브랜드 SUV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누적 판매 30만대를 넘어섰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GV70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30만 3803대를 기록했다. 2020년 12월 출시 이후 4년 6개월 만의 성과다.

GV70은 매년 5만대 이상 꾸준히 판매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전체 판매량 가운데 국내는 15만 6000대, 해외는 14만 7000대로 수출 비중이 절반에 가까웠다.

GV70은 특히 프리미엄 SUV 시장 경쟁이 치열한 미국에서 돋보이는 실적을 올렸다. 2021년 현지 시장에 처음 진출한 GV70은 첫해 1만 740대가 팔렸고, 지난해에는 3배에 달하는 2만 9920대가 판매됐다. 미국 누적 판매량도 10만대를 넘어서며 전체 글로벌 실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제네시스 GV70.
〈제네시스 제공〉

지난해 5월 출시된 부분 변경 모델 역시 해외 주요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 앤 드라이버'는 "GV70은 럭셔리와 스포츠의 경계를 능숙하게 넘나들며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승차감이 개선됐고, 조향이 한층 날카로워져 코너링 성능도 정교해졌다"고 평가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도 "세련된 패널 마감과 대시보드 디자인, 센터 콘솔의 카본 파이버 트림까지 환상적인 구성"이라며 "경쟁 차종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극찬했다.

제네시스의 대형 SUV GV80(쿠페 모델 포함)도 2020년 1월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매년 4만대 이상 판매되며 지난 6월까지 누적 판매 29만 3000대를 기록 중이다. 미국 시장 누적 판매량은 9만 5000대로 집계됐다. /김해나 기자 khn@

美 관세 여파에도 현대차·기아·한국GM 7월 해외 판매 늘었다

완성차 5사 국내·해외 모두 증가

올해 7월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 실적이 미국발 자동차 관세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수·수출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4일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KGM) 등 완성차 5개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외에서 총 64만 6614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완성차 5개사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판매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은 오히려 늘어 선전한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내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전에 차량을 구매하려는 '밀어내기 수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한미 간 협상으로 관세율이 한국 정부에서 주장한 12.5%보다 높은 15%로 조정됐음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3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